

“아테네의 불쌍한 사람들”

사도행전 17:16-31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와 빌립보를 거쳐 헬라문화의 산실이요 철학의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하나님은 소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시고 그를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인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통은 축복이 이를 수 없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평탄함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보다 고통으로 인해 맺는 열매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웃으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순결하게 되고 부족함을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행 17:16-17)

아테네(아덴)는 철학, 문화, 예술 방면에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이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며 격분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istressed’ 즉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아테네 백성들의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두 학파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행 17:18)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최고 목적을 쾌락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강조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능력을 비중있게 생각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은 다음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그에 반해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해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지식이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영혼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영혼을 생각하며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배출된 땅,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행 17:24-25)

바울은 여기서 다음의 몇가지를 언급합니다.

- 1.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인간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 2. 천지의 주재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 3.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얽드리며 그것을 섬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이 그린 부적을 몸에 넣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물건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 마음 속,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4.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동냥하듯이 예배 드려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 주는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28절과 2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메바에서 나오거나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분을 통해 자라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 인양 착각하며 삽니다.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만약 생명이 우리 것이라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병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르켜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과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행 17:31)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들을 향해 결단을 요구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행 17:30-31)

1.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 이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기에 이제는 결단하여 이미 주신 증거대로 복음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아테네 사람들은 두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행 17:32-34)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네 말을 다시 들겠다' 하며 '가까이하여 믿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 앞에 성도된 우리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명예, 지식을 우선시 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아테네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배출되고 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였지만,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특징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고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밑줄 부분 참조)
3.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설교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품어야 할 그 사람에 대해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결단을 스스로 해봅시다.